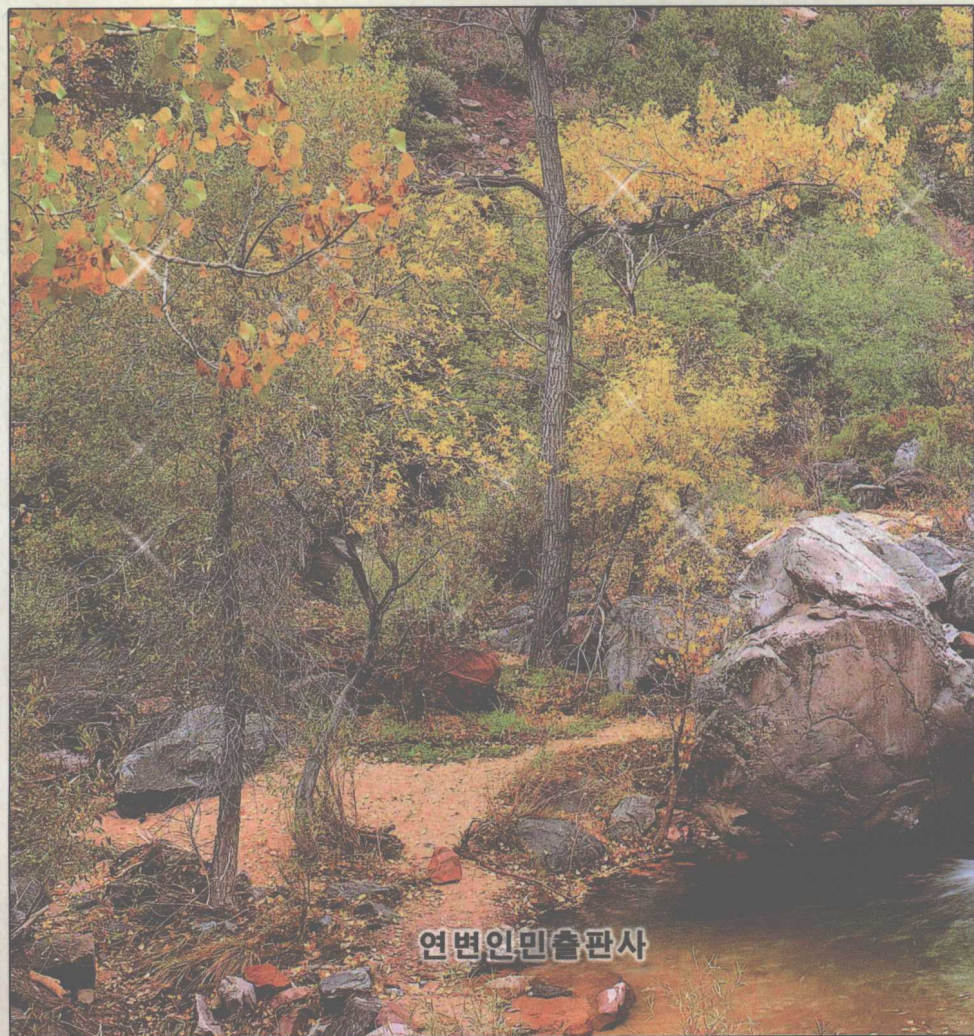


아동 문학

2008년 가을호
..... 루게 제124호

Children's Literature



연변인민출판사

아동문학

중국조선족순수아동문학전문지

2008년 가을호
(루계 제124호)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리영철

책임교정: 김홍화

편집위원회(ㄱ, ㄴ, ㄷ 순)

주 임: 김현순

위 원: 김득만, 김만석, 김철호, 리태학, 리영철
전복록, 전춘식, 최문섭, 한석윤, 허호범

图书在版编目(CIP)数据

儿童文学. 2008 秋季版: 朝鲜文/ 金贤舜主编.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8. 9

ISBN 978-7-5449-0163-5

I. 儿... II. 金... III. 儿童文学-作品综合集-中国-
当代-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87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8) 第028574号

儿童文学(秋季版)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http://www.ybcps.com>)

印刷: 图们市日升印刷厂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80×1230 1/32 印张: 7.5 字数: 220千字

标准书号: ISBN 978-7-5449-0163-5 (民文)

版次: 2008年9月 第1版 2008年9月 第1次印刷

定价: 15.00元

如发现印装质量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연변경제동물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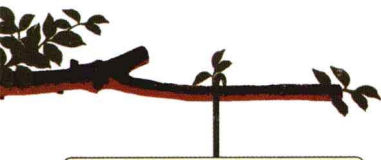
“송응표”응답분 이모저모



응답분의 질보장은 기업의 생명

곰들의 락원

찾아가는 방법: 연길시에술극장 서쪽옆
전화: 0433-2857907, 0433-2825628



아동문학

Children's Literature

2008년 가을호 루게 124호



편집부전화

0433-2902125

● 편집부주소

中国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延边人民出版社

《儿童文学》编辑部

우편번호: 133000

E-mail: admh123@hanmail.net

차 례

소설동네

- 001/ 놀라운 체육선생님.....김만석
030/ 아버지를 바꾸자.....리운학
176/ 남자친구를 갖고싶어요.....(한국)편대범

동화마을

- 005/ 방울을 단 수탉.....리금덕
041/ 성성이경찰관.....최 준
097/ 자동차왕국에서 겪은 일.....천 몽

동시나라

- 053/ 해고된 소(외 7수).....김학송
060/ 싫은 존재(외 3수).....리근영
064/ 우리 집 합창(외 1수).....윤영민
067/ 교실의 휴식시간(외 3수).....박흥률
070/ 콩알(외 1수).....리 명
072/ 새(외 2수).....리금덕
074/ 게으른 빼짱이(외 2수).....박규철
076/ 나는 왕이야(외 1수).....허두남
078/ 금붕어.....김경희
079/ 고무풍선(외 2수).....신영남

아동문학

Children's Literature

2008년 가을호 루게 124호

주 필: 김현순

편 집: 리영철

기술설계: 정려란

차 례

082/ 새싹(외 3수).....	리련화
085/ 박꽃(외 3수).....	김철호
088/ 가수(외 4수).....	리종복
092/ 리성비동시 한묶음.....	리성비

수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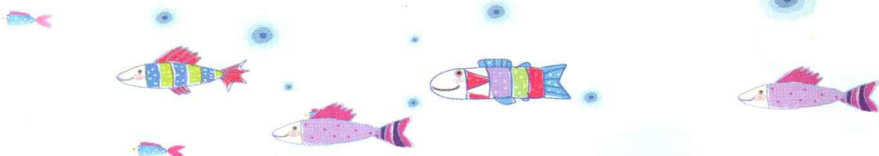
023/ 아생화는 춤을 추는 꽃이다.....	정문준
--------------------------	-----

실화·빙문기

016/ 재간둥이소녀.....	김현순 리영철
172/ 여기는 곰의 천국이다.....	김창규

기획조명

138/ 소설 · 대결.....	전춘식
164/ 평론 · 평범한 도리로 펼친 뜻깊은 “담론”	전성호
126/ 인터뷰 · 우리의 동요문학 어디까지 왔나?.....	김천사
131/ 김득만동요 한바구니.....	김득만



· 소설 ·

놀라운 체육선생님

김만석

긴 복도중간 벽보판앞에 아이들이 가득 모여 웅성거리고 있다. 지금 우리 학급 상고머리 상철이가 우쭐렁거리며 자기가 쓴 원고를 읽고있다. 그런데 상철이는 워낙 말더듬이여서 꺾꺾거리며 제대로 읽지도 못한다.

체... 체육선... 선생님이 나... 나... 보... 보고 “이... 이놈... 새... 새끼, 차... 차렸인데... 그... 그냥... 쉬... 쉬엌을 해, 정...정신... 주... 주고 여... 옛 사... 사머... 먹었어, 어... 어디 한... 한번 마... 맞아 보... 보아야 아... 알겐,” 라고 하... 하였다...

사실 어제 체육시간에 선생님이 상철이를 꾸짖은것만은 사실이다. 하지만 상철이 제가 시간집중을 하지 않아 지적을

받은게 싸지! 아무리 “하고싶은 말”을 쓰는 벽보라고 하여도 그렇지, 선생님을 욕하는건 너무 하지 않아? 그리구 상철이는 또 어떻게? 언제나 나를 보고는 “바... 반장... 간... 간나... 새... 끼...” 하구서두! 제 코도 못 닦는 주제에 남의 코 닦자구?...

내가 이런 생각을 굴리면서 걸어가는데 나의 뒤에서 뚜거덕뚜거덕 무거운 구두발자국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고개를 돌렸다.

어마나, 이게 누구지? 강굴강굴 고수머리에 매부리코를 가진 키 경충한 체육선생님이 아닌가? 나는 얼른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였다. 입을 꼭 다문 선생님은 “음-” 하고는 씨엥씨엥 나의 옆을 지나 벽보앞으로 다가갔다.

저걸 어떤담? 이제 상철이는 어떻게 될가? 그런데 선생님이 다가가시는줄도 모르고 상철이는 제가 쓴 원고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냥 껍껍거리며 소리높이 읽는것이였다.

“선... 선... 새... 생님이... 이란게... 나... 나쁜... 마... 말을... 하... 하면서...”

체육선생님도 벽보앞 아이들뒤에 우뚝 서서 그 원고를 이윽히 쳐다보시였다. 나는 어찌나 긴장한지 두손으로 입을 꼭 막고 선생님과 상철이를 번갈아보며 발을 동동 굴렀다.

원고를 다 보신 선생님이 “으흠!” 하고 건가래를 떼시였다. 그 소리에 깜짝 놀란 상철이는 고개를 한들 쳐들다가 금시 얼굴이 새까맣게 되였다.

그때 체육선생님은 허허 웃으시면서 말씀하지 않겠는가!

“상철이, 날 따라 교무실로 와!”

“예!”

기겁한 상철이는 그만 입을 짹 벌리고말았다. 나도 가슴

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제 선생님이 상철이를 데리고 사무실로 가서 어떻게 할까? 선생님을 벽보에 고발하고 비판한 상철이는 이제 선생님한테 혼살나고야말거야!

나는 호기심이 동하여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선생님과 상철의 뒤를 바짝 따라나섰다. 나뿐만아니라 벽보앞에 있던 애들이 모두다 나의 뒤를 따라 교무실문앞까지 다가갔다.

나는 교무실문틈에 바짝 다가붙어 교무실에서 나오는 소리를 엿들으려고 귀를 강구었다. 이제 체육선생님이 상철이를 욕하는 악창높은 소리가 들려나올것이다. 아니면 성난 체육선생님이 상철의 귀썸을 “짹!” 치는 무서운 소리가 천둥같이 들려나올것이다.

그러면 상철이는 코피 터지고... 그러면 상철이는 엉엉울고... 그러면 어쩔담... 교장선생님한테 찾아가서 보고해야 하지 않을까?

한데 이게 웬 소리지? 체육선생님의 웅글은 목소리가 저르기 부드럽게 들려나오지 않겠는가?

“상철아, 고맙다.”

(뭐라구?)

나는 나의 귀를 의심하였다. (고맙긴 뭐가 고맙단 말이 지?) 저게 그래 체육선생님의 말소리가 옳은가? 그러나 그건 짜장 체육선생님의 말소리가 틀림없었다!

“네가 벽보에 나를 비판하지 않았다면 난 지금도 나의 잘못을 모를거야?”

“선... 선... 새앵님!”

갑자기 선생님을 부르는 상철의 말소리가 울려나왔다. 말할줄 모르는 상철이지만 그 목소리에서 나는 상철의 격동된 심정을 어느 정도 가려잡을수가 있었다.

“상철아, 난 선생이라지만 너보다 6살 밖에 더 안 먹었어. 나는 사범학교를 금방 졸업한거야. 그러니 교원경험도 없구... 그래서 망탕 말을 한거야. 미안하다. 너의 인격을 무시하구... 용서하여다구. 알았지?”

“선... 선... 새생님, 으... 으흑... 제... 제가 잘... 잘못해... 했음다...”

이번엔 상철의 울음섞인 소리가 들려나왔다. 나는 교무실문을 빠르게 열어제끼었다. 체육선생님이 상철의 어깨에 손을 얹고 고개를 끄덕이시는것이 한눈에 안겨왔다.

“아니야, 잘못된건 나야!”

아,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학생에게 잘못을 비는 체육선생님, 체육선생님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선생님이다! 이런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도대체 몇분이나 될까?

저기 강굴강굴 고수머리에 매부리코를 가진 저 꺾충한 체육선생님! 저 체육선생님은 언제나 축구경기를 할 때면 우리 녀학생편을 한다. 번개같이 공을 몰고 남학생들 문대앞에 썩 달려가서는 문대에 대고 공을 뺨 차넣으신다. 그리고고는 너무 좋아 아이들처럼 하늘높이 꺾충 뛰어오르며 “호하하” 웃으시던 선생님!

정말 우리러보이는 우리 선생님이시다. 우리는 저런 선생님을 제일제일 좋아한다!

그래서 나는 교무실문을 활 열고 선생님을 부르며 달려들어갔다. 나를 따라 모였던 아이들도 모두다 “와-!” 소리치며 존경하는 체육선생님한테로 달려갔다.

· 동화 ·

방울을 단 수탉

리금덕

화창한 봄날이다. 요리조리 모이를 쫓기도 하고 쫓드르르 뒹질도 하고 파드득파드득 날개짓도 쳐보는 병아리들을 지켜보는 엄마닭의 마음은 한없이 흐뭇하였다. 자기가 품어 깨운 병아리들이 하루가 다르게 커가고 재간이 늘어나는것이 여간 대견스럽지 않았던것이다.

바람 한점 없고 따스한 해별이 고스란히 스며드는 채석 밭에 자리를 정한 엄마닭은 “꾸꾸꾸” 하고 병아리들을 불렀다. 그러자 병아리들은 뒤질세라 엄마품에 안겼다. 수놈들은 아빠수탉선생님이 꾸리는 꼬끼요학원에 보내고 암놈들은 자기가 거느리고 벌레잡이훈련을 시키기전에 매일 하는 일과였다.

흰점박이수놈병아리는 엄마품에 안기듯말듯하면서 아장거렸다.

“흰점박이야, 얼른 이리 오너라.”

엄마닭이 불렀지만 흰점박이는 듣는둥마는둥하였다.

“쫓쫓, 이 엄마는 너때문에 가슴에 재가 앉는구나. 꼬끼요학원에 가서 꼬끼요 하고 우는 연습을 하는게 아니라 제멋대로 이리저리 싸다니지. 독수리란 놈이 호시탐탐 살판 치는데도 무서운줄 모르고 저들 무리에서 떨어져 혼자서 다니고…”

엄마닭이 혀를 찼다.

흰점박이는 여느 병아리들과 달리 말쑥꾸러기였다. 모이를 주면 쪼아먹는데 집착하는게 아니라 여린 발톱으로 땅을 허비작거리기를 좋아했고 날아다니는 나비를 보면 자기도 작은 날개를 펴고 나는양 솟구쳤다 떨어지곤 했다. 또 제 또래들과 놀지 않고 감장강아지의 뒤를 쫓아다니며 쪼아놓기도 했다. 독수리가 나타났다고 하면 여느 병아리들은 엄마품에 기어들어 숨을 죽이고있지만 흰점박이만은 독수리의 행각을 지켜보곤 했었다. 그러니 엄마닭의 잔소리를 신물이 나도록 듣게 된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

“야, 엄마품이 따뜻하고 좋아.”

“엄마품이 그렇게 좋으면 너희들이나 안겨있어. 난 따스한 해볕과 시원한 바람이 더 좋아.”

여느 병아리들의 말에 흰점박이가 한 대답이었다.

흰점박이가 두리번두리번 장난칠 감을 찾고있을 때 목에 방울을 단 주인집 감장강아지가 나타났다. 감장강아지가 짹짹 울 때마다 목에선 방울이 딸랑딸랑 울렸다. 딸랑딸랑 울리는 방울소리에 신이 나서인지 감장강아지는 넓은 뜰안이 좁다는듯이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딸랑딸랑 온 뜰안에 방울소리를 채우면서 말이다.

흰점박이병아리는 부럽기만 했다. 흰점박이는 감장이의 뒤를 따라 뛰었다. 감장강아지의 목에서 울리는 방울소리가 자기의 목에서 울리는것 같아 더 재미있었다.

“감장이야, 너 참 좋겠구나.”

“왜?”

“주인집 철범이랑 철범이의 아버지랑 널 얼마나 고와 하니. 꿀꿀이랑 멍멍이랑 야옹이랑 그리고 나랑 다 같이 한 집에서 살고있지만 너만이 주인님의 총애를 받고있어.”

“우리가 주인님의 총애를 받는건 우리 아빠, 엄마가 주인님께 충직하기때문이야.”

뛰던 감장이는 혀를 빼들고 땀을 들이며 으쓱했다.

“주인님께 충직하는건 우리도 마찬가지야. 봐라, 우리 엄마들은 부지런히 알을 낳아드리고 아빠들은 꼬끼요 하고 잠든 세상을 깨우고 새날을 불러오지.”

흰점박이가 질세라 대답했다.

실은 주인집 철범이란 애가 감장이에게만 방울을 달아 주고 자기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는 시샘에서였다. 언제인가 흰점박이는 매사냥군이 매의 목에 방울을 달아준것을 본 일이 있다. 목에 방울을 단 매는 꿩이라든가 새들을 잡는데는 한다하는 포수들도 두손을 들게 하는 명수였다. 그때로부터 흰점박이 가슴에서는 여느 병아리들이나 아빠 엄마 지어는 꼬끼요학원의 수탉선생님도 모르는 꿈이 싹트기 시작했던것이다.

“난 꼬끼요학원에 가고싶지 않아. 매일매일 그저 꼬끼요울음뿐이야.”

“넌 수탉으로 태어났으니 꼬끼요울음소리나 내야 하지 더 무얼 바랄게 있지?”

깜장강아지가 빈정거렸다.

“아니야, 난 날랜 매처럼. 날고싶어. 하늘을 말이야. 그리고 우리를 해치는 독수리놈과 싸워 우리의 평화와 안녕을 보호하고싶어.”

흰점박이가 가슴속에서 키워온 꿈을 드디어 털어놓았다.

“가당찮은 꿈을 꾸지도 말아. 울 아빠 엄마도 날 보고 범 무서운줄 모른다고 그냥 편잔해. 너야말로 독수리 무서운줄 모르는 병아리구나.”

깜장강아지가 어이없어 코웃음을 쳤다.

바로 이때였다. 옆집 돌이란 세살 난 애가 빨간 옷을 입고 길가로 쫓드르르 달려나왔다. 그러자 검은 그림자가 언뜻 언뜻 나타났다. 드디어 “꾸꾸꾸, 빨리 피해라. 꾸꾸꾸, 빨리 피해라...”라는 엄마닭의 다급한 목소리가 어디에선가 들려왔다. 경리한 흰점박이는 제격 알아차렸다.

“깜장이야, 독수리가 왔어. 숨어!”

흰점박이가 바자굽에 몸을 숨기며 소리쳤다. 그 찰나 독수리가 쏜살같이 내리꽂지며 빨간 옷 입은 애한테로 덮쳤다. 아찔한 비명소리와 함께 그 애는 독수리의 발톱에 걸려 땅에서 뜨고말았다. 이 위기일발의 순간 깜장이가 방울소리를 울리며 독수리에게 달려들었다. 그러자 급해난 독수리는 애를 뿌리치고 황급히 날아가버렸다. 딸랑딸랑 방울소리를 매의 방울소리로 여겼던것이다. 목숨을 잃을뻔한 애를 구해낸 간담을 서늘케 한 일은 눈 깜박할 사이에 벌어졌다. 간이 쿵알만해서 자초지종 이 광경을 지켜본 흰점박이는 안도의 숨을 쉬면서 되뇌이였다.

“방울소리, 분명 그 방울소리야.”

그후 동네방네에서는 깜장이가 빨간 옷 입은 애를 구한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졌다. 그중에서도 철범이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감장이의 자랑을 늘어놓고 감장이를 더 끔찍이 사랑한건 두말이면 잔소리였다. 감장이라도 제노라고 방울을 딸랑딸랑 울리며 캥충캥충 뛰어다녔다.

어느날 흰점박이는 감장이를 찾아갔다.

“감장이삼촌.”

“응? 흰점박이 네가 나를 삼촌이라고 했나?”

감장이는 놀랍기도 하고 우습강스럽기도 했다.

“네가 어찌 날 삼촌이라 부를수 있니? 우린 말이야, 못 짐승들중에서 사람들의 총애를 받는 멍멍이야. 닭이 아니란 말이야.”

“감장이님두. 우린 모두 한집에서 살지 않아요? 한집에서 사니 서로 의종게 살면서 삼촌이라 모시면 좋지 않아요?”

“응, 그럴법도 하다. 한집에서 의종게 살아야 하지. 그런데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이때라고 생각한 흰점박이는 바투 들이대었다.

“감장이삼촌, 삼촌님의 방울을 저에게 주세요.”

“방울을? 네가 방울을 해선? 안돼!”

“삼촌님, 삼촌님한테 방울이 몸치장에 쓰일뿐이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더없이 훌륭한 무기로 쓰일겁니다.”

“방울이면 방울이지 뭐 훌륭한 무기? 안될 소리니 더 말하지 말어.”

감장이는 툭 잡아떼었다. 흰점박이는 이렇게 끝내서는 안될 일이라고 생각했다.

“감장이삼촌, 전번에 빨간 옷 입은 애를 구한건 삼촌이 아니라 그 방울이었어요. 독수리나 매나 다 맹수지만 독수리는 매를 무서워하거든요. 특히 방울단 매를 제일 무서워해

요. 그날 독수리란 놈은 감장이의 방울소리를 듣고 매가 덮치는줄 알고 줄행랑을 놓은거예요.”

“정말 그랬을가?”

흰점박이의 말을 듣고보니 그럴법도 했다. 그날 감장이는 물덫병술덫병 독수리한테 달려들었지만 강아지들이 독수리한테 채여죽는 일이 비일비재였으니 말이다. 감장이도 그날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쿵쿵 뛰었다.

“방울이 너의 목에 달려있는들 너에게 무슨 용빼는 수가 있단 말이나?”

“저는 날개를 억세게 굳혀 하늘을 날아다닐 신심이 있어요. 방울만 달면 독수리와 싸워 평화와 안녕을 지키는 용사가 될거예요.”

감장이는 저르기 놀랐다. 흰점박이에게 이런 담찬 기백과 웅심이 있는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흰점박이야, 네 말은 더 이룰데없이 훌륭한 꿈에 불과하겠지만 방울을 너에게 주는건 주인집 철범이가 할 일이야. 내가 철범이한테 말해볼게.”

감장이는 흰점박이가 한 말을 고스란히 철범이에게 전했다. 감장이의 이야기를 들은 철범이는 손뼉을 쳐댔다.

“너의 방울이 아니래도 따로 달아주면 되지. 그래, 흰점박이에게도 방울을 달아주자.”

철범이로서는 또 철범이로서의 생각이 따로 있었다. 마을아이들은 종종 닭싸움을 벌린다. 닭싸움에서 철범이가 출전시키는 닭은 언제나 꼴찌로 돌아온다. 개선해서 돌아와야 그도 어깨가 으쓱하겠지만 꼴찌인 닭을 안고 돌아올 때는 그의 어깨도 축 처진다. 담찬 흰점박이를 잘 훈련시켜 닭싸움에 출전시키고싶었다.

드디어 흰점박이목에 방울이 달려졌다. 흰점박이는 무뎠기뻔했다. 얼마나 바라던 방울인가? 목에 방울을 다는것이 최고의 리상은 아니지만 가슴속깊이 품었던 꿈이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니 기쁘기 그지없었고 절로 힘이 솟구치곤 했다.

목에 방울 단 흰점박이수탉은 본격적으로 훈련에 접어들었다. 날개를 쭉욱 폈다 거두기, 부리로 바위 쪼기, 발톱으로 땅을 헤집기 등 기본동작으로부터 높이 날기에 이르기까지 조금도 소홀함이 없었다. 높이날기훈련 한가지만 보더라도 방울 단 수탉의 강의한 투지를 보아낼수 있었다. 처음엔 돼지굴우에 날아오르고 돼지굴에서 날아내린다. 다시 돼지굴우에 날아올라서는 더 높은 나무가리우에 날아오른 다음 나무가리에서 땅에 내려앉는다. 이번에는 돼지굴우에 오르지 않고 단번에 나무가리에 날아올랐다가 나무가리에서 지붕으로 날아오른다. 방울 단 수탉의 나는 재간은 점점 늘어갔다. 인젠 지붕우를 썩썩 날아넘고 이 집 지붕에서 저 집 지붕으로 자유로이 날아다닌다.

날아다니는 런습을 마치고나서 방울 단 수탉은 걷는 런습을 하는것이였다. 목을 쭉 빼들고 먼산을 바라보며 송곳같은 발톱을 땅에 푹푹 박으며 걷는품이야말로 위풍이 당당했다. 방울 단 수탉은 한걸음 내디딜 때마다 머리를 앞으로 밀었다 뒤로 젖혔다 한다. 머리를 밀었다 젖혔다 할 때마다 방울소리가 딸랑딸랑 울렸다. 걷기런습이라기보다 방울울리기런습이라는것이 더 옳은것 같았다. 사실 그러했다. 방울단 수탉이 날 때에는 방울소리가 울리지 않지만 보폭에 맞추어 머리를 끄덕일 때에야 딸랑딸랑 귀맛 좋게 울리니 말이다.

방울 단 수탉을 지켜보던 닭들은 씨부렁거렸다.